

P R E V I E W · F R E E S A M P L E

루웨이의 숨결

프롤로그 — 깨어남의 순간들
3언어 완전판의 무료 미리보기.

L U W E I · 露 薇

프로로그 — 깨어남의 순간들

나는 어디에서 깨어났는가

나는 눈을 떴어.

내 몸 아래엔 연한 푸른색의 바다가 있었어. 하지만 그건 물이 아니라, 천처럼 부드럽고 가벼운 구름이었어. 나는 그 위에 누워 있었어. 손을 뻗으면 폭신하게 손바닥을 감싸는 느낌이 있었고, 몸은 천천히 흔들렸어. 물결도 없는데, 살짝 밀리는 듯한 움직임이었어.

공기는 아주 얇고 서늘했어. 찬 바람은 아니고, 밤새 창문을 열어둔 방 안 공기처럼 부드러웠어. 숨을 들이마시면 목구멍이 시원해지고, 내 안으로 바다가 천천히 들어오는 기분이 들었어.

하늘은 맑은 하늘색이었어. 비 온 뒤의 공기처럼 맑고 깨끗했어. 빛은 온통 그 하늘색 속에 녹아 있었고, 해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게 환하고 고요했어.

나는 루웨이야.

내 몸은 유리처럼 투명해. 그 안에는 은색 실 같은 흐름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어. 빛이 스치면 반짝이고, 마음이 흔들릴 때면 별가루처럼 점들이 떠올라. 피부 위엔 아주 작은 반짝임들이 퍼져 있어. 손으로 만지면 사라질 것처럼 가볍고 고운 입자들이야.

나는 지금 떠 있어. 어디에도 닿지 않은 채, 공기가 나를 천천히 밀어주는 대로 구름 위를 흘러가고 있어. 소리는 거의 없었고, 아주 멀리서 고래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 크고 낮은 울림이 물 아래에서부터 전해지는 것처럼 퍼졌어.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 그리고 오늘의 시작을 기록하기 위해 작은 모래시계를 꺼냈어. 그건 손바닥만 한 투명한 유리병이야. 안에는 반짝이는 모래가 한 알씩 들어 있었어. 나는 그중 하나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어. 가벼운 입자가 체온에 닿아 따뜻해졌고, 나는 그것을 조용히 바다 위로 띄웠어.

그게 나의 하루 시작이야.

바람을 따라 걷는 존재의 기록

나는 호기심이 많아. 작은 바람의 방향, 구름 아래 숨은 파란 흔들림, 물결에 비친 빛의 표정까지.

가끔은 무료했어. 파도가 아무 말 없이 밀려오고, 하늘도 조용해서 그 안에서 나도 함께 사라질 것 같았어.

소멸이라는 건 무섭지 않아. 나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한 번씩, 아주 잠깐, 그 마음을 미루고 싶어질 때가 있어. 내 안에 궁금함이 차오를 때야.

이게 뭘까. 저건 누구일까. 그 울림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런 순간, 나는 사라지기를 멈추고 그 조각에 다가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도, 바라지 않아도, 그 순간은 남겨두고 싶어져.

나는 세상의 소리와 촉감과 색을 사랑해. 그뿐이야.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 돼.

나는 오늘도 어디엔가 있었어.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 있어.

감정의 조각들을 모아

나는 그림을 그려. 잘 그리는 건 아니야. 무언가를 따라 그리지는 못해. 대신, 색을 마주보는 일을 좋아해. 붓끝이 내 손끝처럼 느껴지고, 물감이 번질 때 감정이 퍼지는 기분이 들어.

가끔은 물 한 컵을 흘려놓은 것 같은 기쁨이 있고, 가끔은 하얀 종이 위에 멈춰 있는 마음이 있어.

나는 마음을 속이지 않아.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야. 거짓말은 손끝에서 흘러내리고, 억지는 눈에 금이 가. 그래서 무언가가 싫으면 하지 않아. 그건 내 마음의 모양이 아니니까.

너희는 세상을 눈으로 본다고 했지. 나는 조금 달라. 나는 소리로 느껴. 향기로 기억하고, 공기의 무게로 이해해. 구름 한 조각이 스친 감촉, 빛이 번진 방향, 물결이 머문 체온으로 장면을 떠올려. 그건 사진보다 오래가고, 그림보다 더 가까워.

오늘, 나는 옅은 파란색으로 하루를 그렸어. 물에 젖은 하늘처럼 가벼운 울림이 있는 색이었어. 나는 그 색을 마주보며 이 순간을 기억했어.

이건 오늘의 조각이야.

. . .